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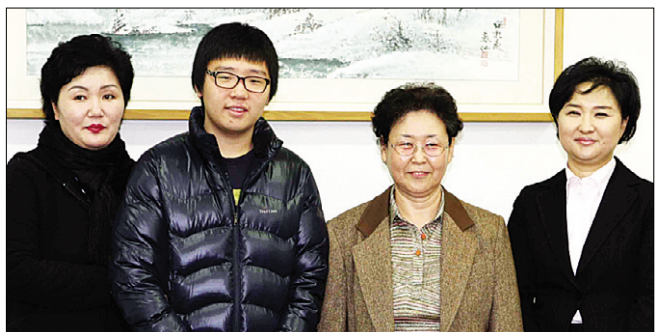
“엄마와 함께 대학생이 됐어요”

불교문화학과 이색신입생 주수자·정혜선씨, 여동화·김영목씨

부산·경남권역에서 최초로 신설된 부산 동명대(총장 이무근) 불교문화학과에 모녀와 모자가 각각 동반 합격해 오는 3월 캠퍼스에 입학한다. 주인공은 모녀지간인 주수자(67)씨와 정혜선(40)씨, 모자지간인 여동화(46)씨와 김영목(18)군이다.

40대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딸 정혜선씨가 일흔을 바라보는 어머니와 동반 입학을 선택한 것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 온 어머니의 삶에 대한 보답과 늘 숨겨왔던 뜻다 이론 배움의 한 때 문이다.

정씨는 “오남매 중 첫째 딸로 동아대를 졸업하고 세월이 흘러 가업을 일으키기 위해 경남정보대학에서 신발공학과를 수료했다. 대학원에 진학해 좀 더 깊이 공부하고자 했지만 당시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의 위기를 맞아 그 꿈은 좌절됐고, 어린 나이에 또 다른 사업으로 재기하려 했으나 그 역시 만만치 않았다”고 회상했다.



왼쪽부터 여동화(46)씨와 아들 김영목(18)군, 주수자(67)씨와 딸 정혜선(40)씨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오남매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 잘 살고 있다. 하지만 자식들이 못만 미안함이 집으로 남아 있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드리기 위해 딸 정혜선씨는 어머니와 함께 동명대 불교문화학과에 입학해, 어머니가 남은 생을 불교공부를 하며 행복하고 편안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저와 어머니 모두 너무 삶에 치여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늘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허망해 하셨는데, 다섯 남매가 모두 장성해서 대학졸업하고 결혼해 분가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유산이 어디 있었어요. 이제 제가 열심히 어머니의 공부 뒷바라지를 해 학사모를 반드시 씌워드릴 거예요.”

또 다른 주인공인 어머니 여동화씨는 항상 아들 김영목군에게 “불교공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가르쳐왔다. 그래서 엄마의 뜻대로 불교

문화학과를 선택해준 것이 너무 고맙고 기특하다.

“저도 얼마인데 왜 SKY대학에 보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살아보니까 재물은 욕심을 낼수록 빠져나간다는 걸 알았고, 다른 전문지식을 배우기 전에 마음을 비우는 공부가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동화씨는 “나 역시 이번이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불교문화와 함께 사회복지 공부를 병행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회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씨는 “절에 갈 때 아이들은 데리고 다녀도, 가기 싫어하는 남편은 차마 데리고 가질 못한다. 그런데 이웃종교의 경우 온가족이 함께 다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웠다”며 “나 같은 만학도도 좋겠지만, 우리 아들보다 훨씬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박지원 기자

자갈치 시장서 나는 따끈따끈 팔죽

대한불교진여원·원오사 동지 행사 다채... 야구 선수 사인회도

동지를 하루 앞둔 구랍 21일 대한불교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자갈치시장에서 동지팔죽나누기 행사를 마련했다.



진여원 진여봉사회에서 자갈치시장 한가운데서 상인과 시장을 찾은 모든 이에게 따뜻한 팔죽을 나누는 모습.

“따뜻한 팔죽, 나누는 한 끼로 세상과 소통을”이란 주제와 함께 자갈치시장 한가운데에서,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생활하는 시장상인과 부산시민에게 팔죽 2000여 그릇을 무료로 나누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부산 구포역 광장에서 독거노인 및 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팔죽 1000그릇을 전하기도 했다.

진여원은 매년 부산시 북구 화명제3관리공원(현충공원)에서 호국영령위령제와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10년간 병행해오며, 동지팔죽 나눔은 작년 이어 두 번째로 진행했다.

남보타월 원장은 “경기가 어렵지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새벽을 일어나는 자갈치시장의 상인들과 부산시민에게 추위와 삶의 무게를 따뜻하게 녹여주고 싶어 동지팔죽을 나누게 됐다”며 “몸도 마음도 추운 연말에, 달콤한 팔죽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한 번쯤 이웃을 돌아보는 자비로운 마음과 삶의 여유를 갖

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도사 극락암 분원 반송 원오사(주지 정관)도 동지를 맞아 12월 22일 ‘동지맞이 팔죽나눔 및 롯데지아 언츠 선수 팬사인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 10시 동지 불공을 시작으로 11시 30분부터 반야심경 봉독, 회주 명정 스님(통도사 극락선원장) 법문, 장학금 전달식, 롯데 지아 언츠 이대호·정보명 선수 사인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어려운 가정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초·중·고등학생 21명에 6개월간 매월 5만원씩 30만원을 전달하고, 고등학생 1명에 50만원, 보광고등학교 불교동아리 활동비 및 급식비로 100만원, 여중생 위생용품 공급사업 6개월간 420만원 등 1200만원을 전달했다. 원오사장학회는 ‘꿈과 희망, 그리

고 용기’를 이념으로 2008년 5월 뜻을 모아, 지역 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와 북한어린이 돕기, 조손가정 여중생 위생용품 후원, 고교 불교동아리 후원, 원오사 풀나무 공부방 및 어린이법회 등을 후원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과 인연이 깊은 롯데 지아 언츠 이대호 선수와 정보명 선수가 참석해 사인회를 직접 선물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원오사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 아카데미 ‘단술학교’ 학생들의 핸드벨, 오카리나 연주, 대금 및 플루트 연주, 청공중창단(단장 정성민) 및 합창단 공연 등으로 따뜻한 동지를 보냈다.

원오사 회주 명정 스님은 “원오사에 정관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불교의 미래인 어린이 인재들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서 뿌듯하다”며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시민의 안식처가 되도록 스님과 신도들 모두가 힘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꽃산병·연꽃절편 등 사찰음식 선보여

삼광사 ‘천태종 사찰음식 문화 한마당’ 개최

전통사찰음식이라면 의례 비빔밥, 채식위주 식단 정도만 생각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음식은 어떤 것들이며, 이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부산 삼광사(주지 화산)는 구랍 19일 경내 지관전에서 ‘천태종 사찰음식 문화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의 1부 개회식은 테이프 컷팅, 삼귀의례, 국민이례, 개회사, 환영사, 차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이어 2부 사찰음식전에는 밥·국수·죽 정식상차림, 곡물 및 양념장, 꽃산병·연꽃절편·다양한 재료의 다식, 아채유부전골, 인삼튀김, 부각, 젓갈 대신 천연재료



왼쪽부터 정산 천태종 총무원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화산 삼광사 주지,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 정각 부산시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이 사찰음식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로 감칠맛을 낸 다양한 김치류 등 100여 가지 이색 사찰음식이 소개됐다.

특히, 이들 사찰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오신채(五辛菜)인 파, 마늘, 부추, 달래, 양파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들 재료는 자극적인 맛과 향으로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어,

불가에서는 음식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약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기원한다.

주지 화산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소개된 전통 사찰음식은 자연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본연의 빛깔과 향기가 그대로 살아 숨쉬기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일 것”이라며

“한국불교 역사와 함께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찾아, 자연의 숨결과 정갈함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 및 허남식 부산시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통도사 합동소방훈련

자위소방대 역할 중요

구랍 24일, 양산 통도사는 ‘2009 통도사 초광역민관 합동소방훈련’을 개최했다.

예고 없이 이뤄져 현장감을 더한 이날 훈련은 화기를 취급하는 통도사 공양간에서 실수로 불이 나 국보인 대웅전 등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서 훈련을 지켜본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찰 화재의 경우 자위소방대의 초기 진압 기능이 아주 중요함을 절실히 느꼈다”며 “자위소방대 시설과 장비, 교육훈련, 투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훈련에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을 비롯해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경남도 서민군 행정부지사, 안기섭 양산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차, 불성 되찾게 하는 매개체”

불교문화컨텐츠연구원, 여연 스님 초청 발표회

불교문화컨텐츠연구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산, 동명불원 주지)는 여연 스님(전남 강진 백련사 주지·사진)을 초청해 ‘불교문화컨텐츠로서 차(茶)문화’를 주제로 제2회 월례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여연 스님은 “불교잡지 월간 <해인>을 창간하게 된 계기는 법당에 대중을 모아 법문을 설하면 100~200명에게 불법을 전할 수 있지만, 스님을 비롯해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경남도 서민군 행정부지사, 안기섭 양산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성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차문화 속에는 향과 맛, 멋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불성을 되찾을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며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교용품점과 같은 작은 공간에 다짐을 마련해 차문화를 소개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급부상 중인 크루즈 관광 불서는 동시에 1000~2000명을 포교할 수 있는 효율성 때문”이라며 불교콘텐츠의 무궁무진한 활용가능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연 스님은 한국차문화학회, (사)일지암 초의차문화연구원 이사장, (사)대한민국 차문화학회 이사장, 부산여대 다도학과 석좌교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문화컨텐츠학과 교수로 차문화의 대중화에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 총재 : 우 꾸마라 큰스님 일공 큰스님
- 회장 : 목탁 해은
- 부회장 : 불원 혜정 금당 범성
- 포교원장 : 불도 천장
- 여성분과 : 김정남 조도명화 김명숙 채해숙
- 기획실장 : 문 수
- 법인이사 : 최정아 길민정 김승희 고우중 상영민 최정연



외교법인

한국 미얀마 친선 교류협회

미얀마 연방정부 국제 붓다 사리 박물관

세계 일류 평화와 불교 흥법에 기여하고 인간방생을 통해 중생을 제도하고자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부처님 세상을 열고자 합니다.

마음과 행을 같이할 분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지도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시도록 맘을 흘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불제자로서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도반이 됩니다.

대표 02)733-5665 팩스 : 02)733-5671

미얀마 연방정부 친선대사: 선우용녀 님. 김흥국 님. 이익정 님. 조성희 님